

# 사찰의식 국악예술로 승화... 감동 '선사'

### KBS국악관현악단 봉축 특집 무대 마련 '국악, 불교와 통하다' ... 5월 17일 오후 8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 예불의식이 국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KBS국악관현악단은 5월 17일 오후 8시 KBS홀에서 '국악, 불교와 통하다'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명성음악과 종교음악의 교차점에서 새로움을 탐구하는 작곡가 김영동 씨(서울예술대 한국음악과 학과장)가 지휘를, 봉은사 선불 남성합창단(단장 민선희)이 합창을 맡았다.

명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사찰에서 새벽 예불 전에 도량을 청정하게 만드는 의식인 도량 석과 우리음악 생소병주 수풍음이 만난다. 여기에 만물을 깨우는 의미의 법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 범종(梵鐘)이 차례로 무대에 선보인다. 또한 예불소리를 주된 소재로 고요한 새벽 사찰에서 들리는



KBS국악관현악단은 5월 17일 봉축 특집 무대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에는 김영동씨가 지휘를 맡아 합창 등의 공연을 펼친다.

#### 김영동 지휘·봉은사 선불합창단 불교음악의 신세계 보여줘

모든 사물의 소리를 예불의식 과정 속에 녹여내 화제를 모았던 김영동 작곡의 '화엄'을 감상할 수 있다.

합창을 맡은 봉은사 선불 남성합창단은 지난 2005년 창단 ▶서울 불경대회 거리행사 참여 ▶봉은사 송구영신 제야의 밤 행사 ▶경기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 2007 나라음악관전지 공연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송년음악회 등에 참여하며 꾸준한 활동을 펼쳐 왔다.

단장 민선희 씨는 "교수부터 대기업 사

원까지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로 구성된 남성 단원 스물 다섯 명이 모여 목탁을 치면서 지심귀명례와 예불의식을 무대에서 펼친다. 신심이 강한 분들로 구성된 만큼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휘를 맡은 김영동 씨는 1980년대부터 불교의 세계를 음악으로 탐구했다. 영국 뉴그로브 음악사전 뉴밀레니엄 판에 '세계의 작곡가'로 등재될 만큼 그 실력을 인정 받은 그는 명성음악과 종교음악을 통해 새

로운 우리 가락과 소리를 모색하고 있다. 김 씨는 서울대 국악과 졸업 후 대안민족 작곡상, 벨기에 국제영화제 음악상, 아시아 태평양영화제 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지휘자 역임했고 2012 여수 EXPO 문화예술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티켓은 S석 25,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02)781-2244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 연당 조해종 불화 초대전... 55점 선 배

### 6월 3일까지 통도사박물관

연당 조해종 불화의 불화초대전이 6월 3일까지 통도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그동안 불화의 혼을 담은 불화 작품 55점을 선보인다.

통도사박물관은 "우리나라 불화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불모로서의 사명과 오늘에 맞게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열정이 담긴 조해종 불화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 불화를 공부하고 익히는 수많은 젊은 불모들에게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해종 불화는 동국대와 동대학원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



조해종의 석가모니 후불탱

118호 불화장석경 스님, 대구 무형문화재 제 14호 단청장 송곡 조경우, 본연 전연호 선생의 문하에서 사사했다. 한편,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999년 불화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한 이래,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의 개별 전시 및 불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를 해왔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 최불교문화로 전파해왔다. (055)382-1001

## 신비의 땅 앙코르, 34개 작품에 담아

### 심상 23주년 특별 기획전

불교문화사진 동우회 심상(心像)이 23주년 특별 기획전 '심상 Angkor 유적에서다' 전시를 연다. 5월 18일~23일 부천시 문예홍보관(부천역사나)과 5월 27일~28일 석왕사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앙코르를 배경으로 한 34개의 작품이 전시된다.

심상 고외숙 씨는 "특별 기획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비의 땅 캄보디아 앙코르를 담았다. 앙코르는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수십 개의 불교사원을 건설한 앙코르 문화의 꽃을 피웠던 불교 유적이다. 그러나 힌두교가 세력을 잡은 후 많은 불교 예술품이 파괴되어버린 그곳을 작가적 시선으로 담아보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은 앙코르와트 전경

이번 전시에서는 브라아칸 바이은 앙코르와트 등을 담은 34개의 작품에 18명 회원이 참여했다.

심상 고외숙 씨는 "1989년 심상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해외불교문화 유적지 탐방이었다. 세계의 문화유산이기도 한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보호하는데 있어 심상의 사진이 조금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010)3226-7047 정혜속 기자

## "팔만대장경, 천년 지혜로 새 미래 열다"

### 금산사·전북도립국악원 초청 공연 5월 15일 전주소리문화의 전당 모악홀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며 기록문화의 보고인 팔만대장경. 편찬 천년의 해를 맞아 지난해 초연됐던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현창)관현악단과 전북불교연합합창단의 '천년의 보물, 팔만대장경-근심 없는 나무들의 합창'이 봉축을 맞아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다.

러 올라가 팔만대장경에 깃든 무수한 이야기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펼쳐지게 된다.

총 6부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부처님 생애에서부터 깨달음, 초조 및 재조, 팔만대장경 제작 배경과 과정, 의미와 가치 등에 이르기까지 절곡의 세월을 견뎌낸 대장경 역사를 다양한 연주 형태로 풀어낸다.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오진욱 연출로 석상훈스님, 임동창, 여태명, 영산작법 보존회, 전북불교연합합창단 등 총 223명의 출연진이 무대에 오른다.

2시간 동안의 웅장하고 장엄한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관객들은 팔만대장경에 담긴 가치와 정신 그리고 지혜와 진리를 되새기길 것으로 보인다.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은 이번 공연에 대



금산사와 전북도립국악원은 공동으로 5월 15일 '팔만대장경' 공연을 펼친다. 사진은 국악관현악단의 연주 모습

해 "팔만대장경은 중생구제 차원을 넘어 호국과 애민을 담은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이 담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금산사 또한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뛰어난 의승병 스님들의 원력이 살아 있는 호국도량"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5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민족의 혼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차경자 바라밀 합창단장은 "전 단원들은 간절히 기도

하는 마음으로 공연연습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에는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바라밀 합창단, 전북불교대학 부처님세상 합창단,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무주 향신사 부부나 합창단이 참여한다. 또한 이들은 오는 6월 여수에서 열리는 제26차 세계 불교도 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WFB) 총회기간 동안에도 공연하게 된다. (063)277-3497 조동제 전북지사장

## 사방에 연꽃 피니 중생 근심 녹아

### 이순이 연꽃전 5월 16일부터

"연꽃을 보고 있으면 환희롭습니다. 연밭에서 날마다 연꽃이 피는 것처럼 나의 그림 작업도 날마다 연꽃이 핀다. 머리 깎고 벼물웃 입을 수행자는 아니지만 연꽃을 그리는 동안만은 수행자가 됩니다"

이순이 작가의 '연꽃'전이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안마을 내 학수정사에서 열린다. 미술 교사로 활동해온 작가는 퇴임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연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꽃 작품 스물 한 점이 선보인다.

이 작가는 "오늘 아침에도 나의 화폭에 연꽃이 피고 있다. 부처님 앞에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왔다. 수행 끝에



이순이 작, '연꽃'

환희에 이르는 경지가 이런 것일까 어렴풋 짐작할 뿐"이라고 전한다.

그는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모두가 연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33)744-7666 정혜속 기자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 황금위패

亡嚴父 行孝 伏魔 靈駕

고급 밤나무 재질,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옷칠 마감,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특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02-966-9650  
휴대전화: 010-8238-1511  
팩스: 02-921-9650  
홈페이지: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미음

### 민속죽염

25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입 시 시음품 (후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다라니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진언행자 필독서!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叢空)'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원 문제해결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신간!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원 문제해결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종교란 믿음의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각권 10,000원 031-534-3373